

굳건한 신앙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
김 창 선

오늘 저는 특별히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란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대 대관장이었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는 신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신앙은 행함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일상 생활에 적용하고 값진 일을 수행할 때 나옵니다. 지혜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세상이 모든 지식을 가졌으나 지혜가 없다면 균형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고성능 엔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혜란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게 해주는 촉매제입니다. 말일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지혜를 구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기도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없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닌다는 것은 구체적인 원리를 일상 생활에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담배를 습관적으로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담

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대단한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의지로 자신의 결심을 실천했습니다. 그후에 그는 유혹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굴하지 않고 결심한 대로 생활했습니다. 그결과 그는 자신의 결심을 지킨 것에 대한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리가 그의 앞에 있고 그 원리대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확신을 가지고 “원리라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생활의 방법이 되어버렸고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보인 예를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 세에 얻은 외아들을 번째로 바치라는 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예도 그 하나입니다. 또 다른 예로 노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사악하여 주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시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경전에서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가온 멸망에 대한 경고에 대하여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권고를 굳게 믿었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의 가르침에서 이탈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이 지속된다면 멸망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좌절, 그리고 복음의 원리와 규범을 파괴하려는 악의 세력이 만연하는 오늘날 청소년의 부모나 교사 그리고 지도자들은 올바른 지혜와 판단력으로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 : 6) 너무나 많은 청 소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되지 않은 가르침을 학교와 그 밖의 다른 곳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63절에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흔들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악마의 군사들이 하는 감언 이설에 쉽게 미혹당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을 잃고 암흑에 빠져 결국 진리와 의를 반대하고 배도의 길을 걷게 되고 맙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바울의 권고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음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학문을 닦아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기 만족감은 때때로 인간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식의 근원을 잊게 만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과 기도로써 지혜와 인도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의 응답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진실된 정성과 겸손한 태도로 간구해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영혼에 평화를 가져다 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과 기도로써 위안과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는 데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권고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오늘날과 같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방황하는 군중이 너무 많습니다. 성약의 방주를 그만 지으라고 외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알고자 원하는 사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하셔서 야고보의 약속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따스함을 느끼게 되거나 마음의 화평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항상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충실한 자가 되시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이 지상에 유일한 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복음은 참된 것이며 구원으로 이끌어 주는 것임을 압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며 이 교회는 나라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준비시키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한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태평양 제도에 신전이 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림



아피아, 서사모아

통가의 신전 부지 기공식을 위해 야자 나무 밑에 모여 든 약 7,000여명의 회원

서사모아의 교회 대학에 재학 중인 1,700여명의 학생들은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이 말씀을 마치면서 학교 공휴일을 선언하자 우뢰와 같은 기립 박수로 기쁨을 표현했다.

유치원생에서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생들은 수업이 없는 날을 기대하며 흥분된 어조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 섬의 교회 회원들은 학교 공휴일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이유 때문에 킴블 대관장의 방문으로 가슴이 벅차게 되었다. 그의 급작스런 13일간의 태평양 제도 여행은 타히티와 통가 및 서사모아의 회원들을 위해 1, 2년 이내에 그 지역에 신전이 세워짐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관장은 2월 13일에 타히티 파피에이테이에서, 2월 18일에는 통가의 누쿠알로파, 2월 19일에는 서사모아의 아피아에서 가진 기공식에서 첫 삽을 뜨고 새로운 신전 부지를 헌납했다.

“주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희생한다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킴블 대관장은 기공식에 모인 회원들에게 말씀했다.

통가와 서사모아에서는 정부의 수뇌들도 기공식에 참석했다.

통가의 파우파아하의 투푸 4세 왕은 야자수 나무가 늘어선 땅에 자리잡은 7,000여 인파에게 축사를 전하고, 킴블 대관장과 함께 기름진 검은 흙을 퍼올려, 신전 건축이 시작됨을 알렸다.

기공식을 마친 뒤, 수천 명이 참석한 축하연에서 킴블 대관장은 왕의 조부, 시아오시 투푸 1세 왕이 1891년에 섬나라 왕국으로 물론 선교사들을 처음으로 맞아들인 공적을 치하했다. 왕은 그 지역을 방문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4시간 동안 보냈다.

사모아에서는 말리에이토와 타누마필 2세 국가 수반이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 거

행된 기공식에서 김볼 대관장을 도와 삼을 들었다.

기공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내리기 시작하여 퍼붓는 비는 김볼 대관장과 국가수반이 첫 삼을 뜨기 위해 휘장을 친 단위에서 걸어나오기 직전까지도 멎지 않았다.

줄기차게 내리는 비를 맞으며 동요없이 앉아 있던 4,000여명에게 김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 기공식날도 우리 모두에게 기쁜 날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가장 훌륭한 날은 완성된 신전을 헌납하기 위해 1,2년 뒤에 우리가 다시 돌아온 때입니다.”

자리를 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식을 마친 후에 비에 젖은 한 합창단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신전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치있는 일입니다. 비가 온다는 것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떠나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지상에 회복된 것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오랜 교회 역사를 지니고 있던 나라인 타히티에서 가진 기공식에서는 약 3,000여명이 참석했다. 미국 이외의 선교 지역인, 불령 폴리네시아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도착한 것은 1844년 4월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순교당하기 2개월 전이었다.



타히티의 파피에이 테이에서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스텐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의 부인 카밀라 자매.



서사모아의 아피아. 신전 부지 기공식장에서 비를 맞으며 노래하는 합창단. 기공식을 갖는 동안 폭우가 쏟아졌다.

3개의 신전이 건축되면 타히티인과 통가인과 사모아인들이 신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장거리 여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새로운 신전이 건축된 후에라도, 다른 섬들의 회원들이 여행해야 될 것이다.

사모아는 하와이와 뉴질랜드에 있는 신전 사이에서 중간 정도에 있어, 각기 2,60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로, 그것은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리스에서 뉴욕시까지의 거리보다 더 먼 거리이다.

타히티 역시 뉴질랜드 신전에서 다른 방향으로 약 2,60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통가는 약 1,300마일 가량 떨어져 있다.

파피에이 테이 타히티 스테이크의 빅터 디 케이보 스테이크 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부모와 세 명의 자녀로 된 가족이 뉴질랜드까지 여행하려면 약 5,000불 정도의 경비가 듭니다. 이 지역의 노동자들은 한 달에 약 600불(미화)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신전에 가기 위해서 충분한 경비를 저축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은 흔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많은 경비가 드는 장거리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타히티에서는 매년 40내지 80명의 회원이 참가하는 뉴질랜드 여행이 추진되고 있다고 케이브 스테이크 부장은 말했다. *

서울 북 스테이크 대회



서울 북 스테이크 대회 광경: 장로 신권 지지를 받고있는 모습.

지난 3월 15일 오전 7시 30분부터 녹번동에 위치한 제 6와드에서 1981년도 전반기 북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이날 첫 모임인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2년간의 선교 사업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이 두영 형제와 이 기복 형제의 간증과 김 차봉 서울 서 선교부장의 새로운 가정 복음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간증이 있었다. 이어서 9시부터 10시 45분까지 역원회가 진행 되었으며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회가 있었다.

이번 대회에서 2명은 칠십인 신권을 19명은 장로 신권을 부여받았다. 대회 역원회에서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비회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우정 증진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강조하는 필름스트립을 보았고, 제 9와드의 임 길성 감독의 성공 사례와 홍무광 스테이크 부장의 말씀이 있었다. 약 1,000여명의 회원과 구도자가 모임 가운데 일반 총회가 진행되었는데 대제사 신권을 받고 제 6와드 감독단에서 봉사하게 된 이

준택 형제는 한미 우정 사절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물론 가정에 머물면서 말일성도의 성실한 생활 태도에 감명을 받아 개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현재 문교부 장학관으로 근무하는 송 영식 형제와 송 형제의 아들인 송 재근 형제가 나란히 서서 장로 신권을 받는 모습은 참석한 회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제 6와드의 박 근자 자매는 40여년 동안 참된 교회를 찾다가 온 가족과 함께 개종한 기쁨을 간증을 통하여 이야기 하였으며 박 기생 스테이크 부장단 제 1보좌는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맺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고, 홍 무광 스테이크 부장은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였으며, 한 인상 장로는 4대 프로그램과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말씀하면서 아울러 신진 추천서를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준비된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독신 성인 동계 훈련 세미나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 동 스테이크 제 1와드에서 스테이크 독신 성인 위원회 주최로 동계 훈련 세미나를 가졌다. 약 80여명의 독신 성인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매일 1시간의 강의와 1시간 30분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 첫째날은 말일성도의 직업관에 대하여, 둘째날은 종교관 그리고 셋째날은 말일성도의 결혼관에 대하여 강의와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하여 김종열 교수, 서희철 교회 교육 기구 대표, 그리고 고원용 동 스테이크 부장이 강의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였다. *

서신학연구원 제 8회 졸업식 및 신입생 입학식



말씀하는 서희철 교회 교육 기구 대표.

지난 3월 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서신학연구원(신촌)에서 제 8회 졸업식 및 '81년도 1학기 신입생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22명의 졸업생들은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도환 원장과 담당 교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아울러 헤어짐을 아쉬워 하였다. 제 8회 졸업생들 중에서 영예의 우등상은 개봉 와드의 김미경 자매, 제 9와드의 차수연 자매, 제 7와드의 임혜자 자매 그리고 부평 지부의 박명숙 자매가 받았다. 또한 공로상은 부천 지부의 임승기 형제에게 수여되었다. 190명의 신입생과 재학생 등 모두 2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식전에서 서울 서신교부의 김차봉 선교부장, 이도환 원장 그리고 서희철 교회 교육 기구 대표가 말씀했다. 이날 모임에 참여한 형제 자매들은 신학 연구원에서 졸업식때마다 대접하는 떡을 함께 나누면서 우정을 나누었고, 신입생들은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특히 이날 식전에 김창선 서울 서스테이크 부장과 홍무광 서울 북스테이크 부장을 비롯하여 많은 신권 지도자들이 참석하였다. *

브래샤 자매, 라이에 하와이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받다.

1981년 2월 22일에 이곳 라이에에서 특별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감리하고, 힐클리 장로가 사회하였다. 이 특별 대회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브래샤 자매가 라이에 하와이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받은 것이었다. 한국 여성에게 또는 하와이나 미본토 출신이 아닌 여성에게 그러한 명예가 주어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부름을 통해서 모든 한국인 가족은 영적인 경험을 갖게 되었으며, 이 부름과 함께 브래샤 자매는 축복을 받았다. *